

이 때는 잠에서 깰 때

—로마서 13:11-14—

政治的으로나 經濟的으로 모두 위기라고 야단들이다. 잠에서 깨어나라는 경종이 갑자기 진동한다.

바울은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압니다”고 한다. 그것은 이 때가 위기임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기인줄 알면서도 자고 있었다. 그러므로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벌써 왔다”고 재촉한다.

위기인줄 알면서 왜? 어떻게 자고 있을 수 있을까?

경제적 파동이 온다는 경종을 들을 때 재빨리 買占에 분망한다. 그로 인해 이웃이야 일어 죽든, 굶어 죽든 나 부터 살기 위한 준비에 분망한다. 이런 사람들은 저금까지의 삶이 방해 받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시 자겠다는 것이다.

정치적 위기가 있다는 경종과 함께 갑자기 聖靈, 救靈의 소리가 높아진다. 잠에서 깨어나는 소음인가? 아니면 밖의 아우성 소리를 듣기 싫어 자면 房을 密封하고 더 깊은 잠의 세계로 도피하자는 수작인가?

이 때가 어느 때인 것은 알았기에 분주하다. 그러나 買占한 物質로 苦惱와 차단하고 安逸의 잠을 계속하자는 것이오, ‘外界’의 騒音이 시끄러워 잠자리를 彼岸에 옮겨서라도 계속 깊이 자려는 것이다.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벌써 왔다. 깨어라! 그 자면 잠에서 깨어났으면 자면 자리를 박차고 네 房門을 활짝 열어라! 그리고 저 암흑에서 고봉하는 형제들의 대열에 참여하라!

밤이다. 깊은 밤이다. 삶은 밤이다. 밤이 깊어 네 房을 밀폐하면 그 밤이 지나고 동이 트는 새 아침에도 참예 할 수 없을 것이다.

밤이 영원히 지속되면 위기가 아니다. 惡만이 있는 곳에 위기는 없다. 밤과 낮이 마주한 그 대치의 時空이 위기다. 惡과 善의 대결의 순간이 위기의 場이다. 그러므로 낮이 올 것을 아는 자, 세 것이 오는 것을 보는 자 만이 이 밤이, 이 낡은 것이 지배하는 이 때가 위기임을 안다. 그래서 비록 어두우나 잠에서 벌떡 일어나고 비록 밤이나 낮 처럼 행동한다.